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년대 이후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변천에 따른 재현연구

(A study on wedding hair and make up
of brides according to different periods)

2011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박 영 희

1980년대 이후 웨딩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변천에 따른 재현연구

(A study on wedding hair and make up
of brides according to different periods)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융합문화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박 영 희

인 준 서

박영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국내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의 변천을 개화기부터 현재까지 문헌연구 방법을 토대로 고찰하고, 1980년대-2010년대까지의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의 변천사를 인터넷자료와 문헌을 비교·분석하여 작품으로 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대적 범위는 웨딩메이크업이 가장 활발했던 1980년대-2010년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시기는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였던 시기이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웨딩 메이크업의 스타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은 패턴이 점차 내추럴풍으로 변하여 깨끗한 피부 표현을 중심으로 자연스런 메이크업이 행해졌다. 색상은 밝고 투명하며 부드러운 스킨, 페일 핑크, 브라운 등의 색조를 사용하여 세련되게 표현되었고, 아이 메이크업은 눈의 아이 홀 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좁은 부위에 바르고 눈꼬리 쪽에는 액센트를 주어 생동감이 느껴지게 하였다. 1980년대 업스타일은 프린지 머리를 세우고 백콤을 많이 사용하여 볼륨이 많은 복고풍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둘째, 1990년대는 에콜로지풍을 영향으로 자연스런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웨딩 메이크업에선 브라운색상의 메이크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아이세도는 오렌지와 브라운, 산호, 핑크 색상등이 사용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아이홀 메이크업이 유행하여 입체감 있는 눈매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 시대의 웨딩 헤어스타일은 전체적인 볼륨감을 형성하여 땅거나 꼬기기법으로 쪽머리 스타일을 변형한 단아하고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을 많이 선호하였다.

셋째, 2000년대에 웨딩 메이크업의 입술은 핑크 계열과 함께 와인이나 레드 계열의 색상으로 내추럴색상을 바탕으로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이용한 로맨틱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청명한 피부 톤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린 톤 메이크업 베이스로 얼굴의 홍기를 최대한 줄인 후 펄 화이트 메이크업 베이스와 컨실러를 사용하여 눈 밑 다크 라인과 T존에 섬세하게 펴주며, 자신의 피부 톤보다 한 단계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여 청명한 피부 톤을 연출한다. 파우더 또한 가벼운 색을 사용하였다. 200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은 다양한 칼라를 이용한 좀 더 내추럴한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넷째,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 특징은 내추럴한 피부표현을 하되 피부의 결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은 색상을 강조하는 면 위주의 메이크업 보다는 내추럴함을 강조하는 선 위주의 메이크업을 하였다. 이시기의 웨딩 헤어스타일은 내추럴한 웨이브 스타일에 왕관으로 장식하는 형태가 많아졌다.

본 연구의 작품은 1980년대-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 4점, 웨딩 헤어스타일 6점을 제작하였다. 작품 I, II, V, VII은 1980년대-2010년대까지의 시대별 메이크업 경향을 비교·분석하여 최신 트렌드 메이크업으로 재구성하였다. 작품 II, IV, VI, VIII, IX, X는 1980년대-201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을 인터넷 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작품을 재현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웨딩 업스타일의 문헌적 연구가 미비하여 시대에 따른 재현에 어려움이 있었고, 웨딩 업스타일과 메이크업의 시대별 비교에 대한 다양한 재현이 부족하여 아쉽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국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변천	3
1) 국내 메이크업의 변천	3
2) 국내 헤어스타일의 변천	19
III. 1980~2000년대의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변천	30
1.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30
1)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	31
2) 198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31
2.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33
1)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	33
2) 199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34
3. 200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34
1) 2000년대 웨딩 메이크업	34
2) 2000년 웨딩 헤어스타일	38
4.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41
1)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	41
2) 201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42

IV. 작품제작	45
1.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작품제작	45
2.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작품제작	52
3. 200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작품제작	59
4.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작품제작	67
V. 결론	7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업지시서	47
<표 2> 198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지시서	49
<표 3> 198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과정	51
<표 4>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업지시서	54
<표 5> 199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지시서	56
<표 6> 199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과정	58
<표 7> 200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업지시서	62
<표 8> 200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지시서	64
<표 9> 200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과정	66
<표 10>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업지시서	70
<표 11> 201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지시서	72
<표 12> 201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과정	74
<표 13> 2010년대 반업 헤어스타일 작업지시서	75
<표 14> 2010년대 내추럴 헤어스타일 작업지시서	77

그림 목 차

<그림 1> 김활란 박사의 개량한복 입은 모습	6
<그림 2> 이방자 여사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6
<그림 3> 최승희의 메이크업	6
<그림 4> 1950년대 메이크업	6
<그림 5> 1960년대 메이크업	15
<그림 6> 1970년대 메이크업	15
<그림 7> 1980년대 메이크업	15
<그림 8> 1990년대 초반 메이크업	15
<그림 9> 1990년대 후반 메이크업	18
<그림 10> 2000년대 스모키 메이크업	18
<그림 11> 2000년 내추럴 메이크업	18
<그림 12> 2011년 스모키 메이크업	18
<그림 13> 한복차림에 히사시가미 스타일을 한 여성과 쪽머리	20
<그림 14> 오드리 햅번	23
<그림 16> S자형의 웨이브 헤어스타일	24
<그림 17> 재클린 케네디 여사	25
<그림 18> 옥영수 여사의 헤어스타일	25
<그림 19> 부드러운 컬과 볼륨의 섹시 스타일	26
<그림 20>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	32
<그림 21> 198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32
<그림 22>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	32
<그림 23> 199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32
<그림 24> 2001년 S/S 웨딩 메이크업	40

<그림 25> 2002년 F/W 웨딩 메이크업	40
<그림 26> 2003년 S/S 웨딩 메이크업	40
<그림 27> 2004년 S/S 웨딩 메이크업	40
<그림 28> 2005년 S/S 웨딩 메이크업	43
<그림 29> 2007년 S/S 웨딩 메이크업	43
<그림 30> 2008년 S/S 웨딩 메이크업	43
<그림 31> 2000년대 중반 웨딩 헤어스타일	43
<그림 32> 2000년대 후반 웨딩 헤어스타일	44
<그림 33> 2011년 S/S 웨딩 메이크업	44
<그림 34> 2011년 내추럴 반업스타일	44
<그림 35> 2011년 내추럴 헤어스타일	44
<그림 36>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품재현	48
<그림 37> 198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품재현	50
<그림 38>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품재현	55
<그림 39> 199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품재현	57
<그림 40> 200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품재현	63
<그림 41> 200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품재현	65
<그림 42>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품재현	71
<그림 43> 201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품재현	73
<그림 44> 2010년대 내추럴 반업스타일 작품재현	76
<그림 45> 2010년대 내추럴 헤어스타일 작품재현	78

I. 서론

인간의 미에 대한 갈망은 끊임없이 요구되어져 왔고, 이러한 요구로 시대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형태의 변화된 모습을 또렷하게 나타내는 표현방식으로 화장, 머리장식, 성형수술, 문신 등을 이용했다. 이러한 신체의 장식은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개성표현의 수단이었고, 각자의 이미지 표현방법이며 인간의 삶에 지위와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다.¹⁾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신부의 이미지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얼굴형, 직업, 나이, 장소, 계절, 유행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웨딩 메이크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와 풍습에 맞도록 변화시켜 서양과는 다른 독특한 웨딩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메이크업 테크닉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부화장 기법과 한국인의 얼굴과 감각을 고려한 기법 및 현대적인 테크닉이 조화롭게 발달하고 있다.²⁾ 웨딩 헤어스타일은 모든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헤어디자이너는 형태, 질감, 그리고 칼라의 세 가지 기본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디자인 법칙을 통해 이 요소들은 예술적으로 배합함으로써 무수한 디자인을 창조해 낼 수 있다. 헤어디자이너들은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모발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 연출 중에서 가장 세련된 테크닉과 고도의 감각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스타일은 헤어디자이너의 창작요소가 가장 많이 내포되어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웨딩 촬영과 결혼식에 대부분의 신부들은 자신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그 어느 순간보다 아름답게 표현되기를 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1) 권구정의5인(2006), Makeup icon, 서울:청구문화사, p. 33.

2) 강경화(2000), 메이크업 총론, 서울:APC, p. 24.

1980년대부터 현재 최근2010년도까지의 웨딩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경향을 비교분석하고 재현함에 목적이 있다. 시대의 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웨딩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최대한 신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시대적 범위는 1980년대-2010년도 현재로 제한하였다. 이 시기는 웨딩 메이크업과 업스타일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였던 시기로 서양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웨딩메이크업의 스타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역사를 개화기에서 1990년대까지 문헌과 인터넷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웨딩 업스타일과 메이크업을 1980년-2010년도를 중심으로 웨딩사진을 통한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변천사를 비교·분석하고, 1980년부터 최근까지의 시대별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재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업스타일과 메이크업스타일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웨딩 업스타일과 메이크업의 흐름을 살펴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변천

1) 한국 메이크업의 변천

(1) 개화기(1876년~1929년)

개화기는 무엇보다도 메이크업 행위의 주체인 여성의 교육 확대와 그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진출, 경제와 산업의 발달, 시대적 가치인식의 변화로 기생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되어져 온 메이크업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차츰 변하게 되어 점차 신여성, 가정주부들에게도 확대되었던 시기였고, 중요한 개혁과 변화의 시기이며 신문화의 출발점이고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문화가 도입되어 근대 메이크업의 경향을 연 시기이기 때문이다.³⁾ 웨딩 메이크업은 일반적으로 뷰티 메이크업과 뚜렷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 시대의 메이크업의 경향을 바탕으로 좀더 화려하고 강조된 이미지 표현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개화기부터 광복이전의 20세기 전반기는 우리나라 메이크업 문화의 개화기이자 화장·화장품의 개화기로 신식 메이크업 문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근대 메이크업 경향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시발점이고 메이크업 경향이 변천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한 시기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 방법의 구분이 확실한 3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다.⁴⁾ 이시기에는 개화의 물결을 타고 일본, 중국 등의 화장품이 밀려들어오고, 신식메이크업 방법과 화장품이 재래 미용법·화장품과 대치되거나 교체되게 되었다.⁵⁾

3) 김수정(2005), 한국미용100년, p. 32.

4) Ibid., p. 79.

처음으로 미용용어부터 새로워졌다. 개항 이후, 우선 일본으로부터 화장·화장품이라는 어휘가 들어왔다. 우리의 고유 어휘가 아닌 화장은 가화(假化), 가식(假飾), 즉 거짓 꾸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장이라는 말이 고려시대 이래 사용된 적이 있지만 화장이었다.⁶⁾ 지금까지 화장품은 기생이나 화류계 여성들만이 쓰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개화의 바람을 타고 여학생, 여염집 가정의 주부들까지도 박화분이⁷⁾ 널리 유행하기에 이르러 화장품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고, 값도 폭등하게 되었다.⁸⁾ 이 당시 한국의 화장수요 분포는 기생이나 창녀, 나들이에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천민의 부녀자들, 그리고 황족이나 극히 개화한 몇 가문의 부녀자에 국한되어 있어서 메이크업을 한다는 것은 부도덕하다거나 천민의 할 짓으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개화의 신 물결은 일본풍으로 여겨져서 그리 환영받지 못했던 사회적 분위기는 신식 메이크업 방법이 급속히 유행하지 못했던 원인이 되기도 했다.⁹⁾ 여성의 개방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1920년대에는 분 이외에 비누, 향수 등의 화장품이 유럽에서 수입되었는데, 이 같은 외제 화장품의 수입은 국산 화장품의 제조를 촉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서 국내에서도 국산 화장품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위하여 제조된 국산화장품들이 출시되면서 신식 화장품들이 재래 화장품들로부터 교체되기 시작했다.¹⁰⁾

1920년대 메이크업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여성을 중심으로 개량한복과 양장 착용의 확대에 걸맞게 눈썹은 가늘고 자연스럽

5) 이은주, op. cit., p. 61.

6) 전완길 외(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서울:장원, p. 52.

7) Ibid, p. 66.

8) 주은경(2003),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3.

9) 전선정 외 3인(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청구문화사, p. 312.

10) Ibid., p. 317.

게 둥근 아치형으로 그리고, 볼은 일본풍으로 뽀얗고 창백한 느낌의 하얀 피부로 표현했으며, 입술은 윤곽이 선명한 빨간 입술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메이크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한복과 짝진 머리에서 개량한복, 양장과 짧은 단발 형식에 어울리는¹¹⁾ 메이크업을 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개화기에 신식화장법이 전파되면서 결혼식 메이크업도 서양풍의 드레스와 함께 서양식의 화장법이 도입되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부인 이방자 여사는 아르누보풍의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또렷하고 선명한 입술화장의 신식화장을 하고 있다.¹²⁾

11) 홍인자(2000), “한국 화장문화의 연대기적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개화기 이후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2.

12) 김수정(2005), 한국미용100년, 서울:동서문화, p. 48.



<그림1> 김활란 박사
(한국여성양장변천사, p.167)



<그림2> 이방자 여사
(한국생활문화100년, p. 185)



<그림3>최승희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한국생활문화100년,p.432)



<그림4>1950년대 메이크업
(<http://cafe.naver.com/rcsik/900887>)
검색일.2011년4월9일

(2) 광복이전(1930년~1945년)

1930년대의 화려했던 메이크업 문화는 2차대전의 발발로 일제 말의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며 쇠퇴하였다.¹³⁾ 1942년 봄, 조선화장품 제조업조합을 결성케 하여 이 조합 회원들에게만 원료를 배급하였고, 제품 규격 심사위원회를 두어 제품을 심사했으며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일제 말기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화장품업자는 김동엽과 임성환 이었다. 김동엽의 동방화학은 에레나란 상표로 마니싱크림, 콜드크림 유액, 포마드 등을 생산¹⁴⁾하여 판매했다. 1930년대의 메이크업은 기존의 스킨 위주에서 파우더, 립스틱, 아이섀도, 펜슬 등 보다 다양한 색조 메이크업이 시작되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던 1920년대와는 다르게 눈과 볼, 입술을 강조하는 유행 메이크업이 등장하였다. 아이 메이크업은 검정색으로 음영을 주고 회색 아이섀도를 칠하고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입술은 빨갭게 그려 고대 이집트의 메이크업 분위기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¹⁵⁾

<그림 3>을 보면 당시 무용가인 최승희의 메이크업 패턴과 헤어스타일은 단발머리에 가늘게 휘어진 눈썹과 위, 아래 속눈썹 라인에 검게 강조된 아이라인, 음영이 짙은 아이섀도, 붉게 강조된 직선적인 립 메이크업한 모습에서 당시의 유행 메이크업 방법을 최대한 살린 것을 볼 수 있다.¹⁶⁾

(3) 광복이후(1946년~1969년)

13) 김용미(2000), “해방이후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6.

14) 주은경, op. cit. p. 32.

15) 홍인자. op. cit., p. 32.

16) Ibid.

일본이 물러나면서부터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문명이 몰밀 듯이 밀려옴에 따라 미용에 대한 의식도 급격히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헤어스타일과 의상만이 급격했을 뿐 이었고, 일반 여성들의 메이크업에 대한 자세는 소극적이었다. 메이크업 특징은 굵고 진한 눈썹이 1950년엔 가장 큰 특징이었다.¹⁷⁾ 다만 광복이 되어 아이라인을 강조하는 아이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¹⁸⁾ 이러한 때에 1953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여성들은 패션과 뷰티에 눈뜨기 시작하여, 직업여성을 중심으로 서양식의 새로운 메이크업 방법이 유행하였고 헤어스타일은 영화 속 여배우들의 모습 그대로 선호되었다. 1950년대 메이크업 경향은 앞선 시대와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색조 메이크업 방법이 대중에게 소개가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색조 메이크업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아이섀도보다는 눈의 윤곽을 강조했는데, 인조 속눈썹은 강하게 붙이고, 길고 확실한 아이라인을 그렸으며, 마스카라를 많이 발라 눈을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였다.²⁰⁾ 입술은 빨간색 립스틱이 대유행하였고, 볼 터치도 마치 연극배우의 분장과 같이 진하게 하였다.²¹⁾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메이크업 방법은 부자연스러운 하얀 분화장과 눈썹, 립 메이크업을 하는 정도였으나 60년대 후반기부터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원색 컬러 아이섀도를 사용하면 직업여성으로 오해하는 편견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서양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미의 기준으로 여겨지면서 눈을 크고 아름답

17) 이능희(1995), 태평양50년사, 서울:주식회사 태평양, p. 465.

18) 김용미(2000), “해방이후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6.

19) Ibid., p. 91.

20) 홍인자, op. cit., p. 41.

21) 김수정(2005), 한국미용100년, 서울:동서문화, p. 122.

답게 살려내는 테크닉이 널리 확산되었고 립스틱 색도 빨강, 오렌지, 핑크 계열로 다양해졌다.²²⁾ 1960년대에 들어서 연지가 고풍인 스틱인 립스틱으로 바뀌어 등장하게 되었는데, 주로 특수층 부녀자나 접대부들이 사용하였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붉은색의 짙은 연지색이 일반적이었다. 1962년에는 파운데이션, 아이섀도, 마스크라, 매니큐어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영화배우나 탤런트의 미용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당시 여성들이 이들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패션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²³⁾(그림 4) 1968년 미니스커트의 등장에 맞추어 메이크업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점점 기교를 부리고 여러 색을 이용하여 아이홀을 강조하고 인조속눈썹으로 눈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또한 서양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펄이 섞인 색상을 이용하는 메이크업도 유행하였다.²⁴⁾ (그림 5)

(4) 1970년대

1970년대의 메이크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중적 보편성을 갖게 되었다. 얼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하이라이트를 하고, 코에는 섀딩을 하여 얼굴의 윤곽을 강조하는 화장을 하였다. 아이 섀도는 한 가지 색으로 넓게 바른 반면 인조 속눈썹은 반드시 붙여서 속눈썹이 길고 짙어 보이게 하였고, 눈썹은 조선시대 미인도에서 보이는 눈썹의 형태로 가늘게 뽑거나 그렸으며, 색상은 갈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²⁵⁾

1976년대에는 우아한 여성미를 과시했던 복고풍의 유행경향이 점차 동양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메이크업의 이미지는 풍요하고 건강한

22) Idid., p. 214.

23) 김희숙, op. cit., p. 62.

24) 전완길(1987), 한국 화장문화사, 서울:열화장, p. 24.

25) 김수정, op. cit., p. 247.

여성상을 표현하려 하였으며 입술과 눈매의 표정연출에 중점을 두었다. 입술, 눈, 모양에 따른 화장법들이 개발되었고 과장되게 표현되었던 눈썹의 모양이 자연스러워졌으며, 볼 화장을 필수적으로 해주었다.²⁶⁾ 화장품 종류의 다양화에서 화장품 색상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으며, 1970년대 이전에는 아이 메이크업 위주였던 단조로운 메이크업 방법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별 메이크업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아이 메이크업은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를 사용하여 눈의 윤곽을 뚜렷하고 크게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아이섀도를 사용하였다.²⁷⁾

1970년대 중반에는 가는 눈썹이 선호되고 립은 핑크 색상의 펄이 감도는 레드나 오렌지색상의 인기로 눈, 입, 눈썹 등 얼굴의 모든 포인트에 선명함을 보여주는 데코레이티브(decorative)한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곧, 색의 표현이 중요시되면서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깨끗하고 밝은 색조로 안정감있게 표현하였다.²⁸⁾ 1970년대 중·후반기에는 60년대까지 잘 사용하지 않았던 립스틱 사용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붉은 계열 색상의 립스틱이 유행하였다. 립 메이크업이 유행함에 따라 눈과 립 메이크업의 조화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볼터치를 하여 얼굴 윤곽을 뚜렷하게 표현하였다.²⁹⁾ 1970년대 후반에는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연지향, 건강지향이 대두되고 패션에서도 내추럴한 자연소재에 인기가 모아졌다. 건강지향으로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 미의 척도 중 가장 으뜸으로 생각했던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의 선호가 무너지기 시작하여 건강미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다갈색 피부에 대한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단순한 보습

26) 양덕재(1998), 최신화장품학, 서울:장업신보, p. 78.

27) 김희숙((1998),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연구, p. 62.

28) 전완길(1987), 한국화장문화사, 서울:열화정, P. 51.

29) 방수진(2001), 메이크업 아트, 서울:성화, p. 49.

제품이 아닌 피부 노화 방지 등 기능성 제품 개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화장품이 보편화되면서 남성들이 스킨케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³⁰⁾ 패션의 유행칼라와 그 흐름을 강조 하는 색조 메이크업이 제시되었으며, T-Zone의 하이라이트를 강조하고 햇빛을 받아 건강한 구리색의 피부색에 조화를 이루는 썬을 사용하는 등 입체적이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³¹⁾(그림 6)

(5) 1980년대

1980년대는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너비의 결혼식으로 어린신부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린 메이크업이 특징이었다.³²⁾ 1980년대에는 국민경제가 안정되면서 국민 소득이 증대되고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분야의 관심이 증대되는 등 소비문화가 정착되면서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컬러 TV의 등장, 교복의 자율화로 대중들의 색에 대한 감각이 더 세련되어 지고 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다.³³⁾ 이처럼 소비 시장이 다양화되고 1986년 화장품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자 각 화장품 회사들은 외국 화장품 회사와 제휴한 국내 화장품 개발에 역점을 두어 성장을 꾀했으며 상품 시장을 세분화하여 레몬 화장품과 리포좀(Repozom) 화장품 등 다양한 자연 지향적인 기능성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이에 따라 각 화장품회사의 판촉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³⁴⁾ 1970년대에 이어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욱 늘어나고 위와 같은 사회의 변화들로 인해 여성들의 소비패턴과 미의식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와 메이크업은 패션과 조화를 이루고 입술과 눈의 포인트 메이크

30) 김경순 외 3인(2000), MAKE UP II , 서울:청구문화사, P. 43.

31) Ibid.

32) 방수진, op, cit., p. 56.

33) 박춘심(2001), Make-up , 서울:황문각. p. 81.

34) 박춘심, op. cit., p. 82.

업이 강조되는 등 여성들의 각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패턴이 제시되었다.

1980년대 초반은 컬러T.V의 등장으로 메이크업도 보다 컬러에 주안점을 두게 되어 포인트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³⁵⁾ 아이 메이크업도 눈 주위를 강하게 하는 경향으로 한 원색이 사용되었고, 두꺼운 눈썹에 어울리는 빨간 립스틱과 핑크, 보라, 브라운 계열의 아이섀도에 의한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³⁶⁾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캐리어 우먼이라는 유행어가 생기고 캐리어 우먼 이미지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패턴이 유행하게 된 것이다.³⁷⁾(그림 7) 1980년대 중반부터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의 악영향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됨으로써 여성들의 미에 대한 관심도 어떻게 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다.³⁸⁾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메이크업 패턴이 점차 내추럴풍으로 변하여 깨끗한 피부 표현을 중심으로 한 자연스런 메이크업 방법이 행해졌다. 색상은 밝고 투명하며 부드러운 살색, 페일 핑크, 연갈색 등의 색조를 사용하여 세련되어졌고, 아이 메이크업은 눈의 아이 홀 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좁은 부위에 바르고 눈꼬리 쪽에는 액센트를 주어 생동감이 느껴지게 하였다.³⁹⁾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기호황으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현대화와 개성화가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스킨케어는 과학적인 연구로 계절별, 피부 타입별로 제품을 세분화하였고, 고농축 영양유액, 한방 화장품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화장품 품목수와 생산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⁴⁰⁾

35) 김경순, *op. cit.*, p. 58.

36) *Ibid.*

37) 방수진, *op. cit.*, p. 56.

38) 전완길(1987), *한국화장문화사*, 서울:열화장, p. 41.

39) *Ibid.*, p. 45.

(6) 1990년대

1990년대는 에콜로지풍을 영향으로 자연스런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웨딩 메이크업에선 브라운톤의 메이크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아이 새도는 오렌지와 브라운, 산호, 핑크 색상등이 사용되었으며, 초반에는 아이홀 메이크업이 유행하여 입체감 있는 눈매를 강조하기도 했다. 입술은 핑크 계열과 함께 와인이나 레드 색상계열도 자주 애용되었다.⁴¹⁾

(그림 8)

1990년대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전문 메이크업 아스트들의 활동으로 일반대중에게 메이크업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확산되었다. 매스미디어와 영상매체를 통해 쉽게 접하게 된 메이크업은 청소년에서 노년의 노화방지 시스템으로 전개되어 노년의 메이크업까지 그 연령층이 확대되어 피부 관리 시스템, 청소년들의 메이크업까지 다양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각각의 개성을 창출 할 수 있는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화장품 생산이 고급화를 지향하게 되고,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으로 환경친화적인 화장품 생산과 자연주의라는 세계적인 조류를 따라 기초화장품은 보다 자연성 소재를 선호하는 흐름으로 표출되고 메이크업도 자연스런 색조, 절제된 패턴을 강조하였다.⁴²⁾ 기초와 색조 메이크업의 기본 제품은 교체품이 등장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발한 색조화장품이 과학적으로 생산되어 차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고운 피부를 가지기 위한 화이트닝, 모공관리, 안티링클 등 기능성 제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아름다운 기준이 기존에 얼굴에 한정됐던 것과는 달리 보다 세분화되면서 건강한 몸에 다양한 색상의 머리 염색과 손톱과 발톱, 다이어트에

40) Ibid.

41) 서귀임(2009), “시대별 신부 업스타일과 메이크업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1.

42) 방수진, op. cit., p. 52.

이른 토탈적인 몸매 관리 차원으로 변모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이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⁴³⁾

1990년대 후반에는 세기말의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 금속문화의 절정 등이 메이크업에도 반영되어 그 레이를 주조로 하여 메탈릭한 느낌을 나타내고 눈과 입술에 펄을 사용하여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느낌의 메이크업이 유행하였으며,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메이크업이 고운 피부표현을 강조한 투명하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으로 변화하였다.⁴⁴⁾(그림 9) 내추럴한 메이크업과 함께 부드러운 색조의 ‘미니멀리즘’ 메이크업이 유행했는데 미니멀리즘 메이크업의 의미는 최소한의 단계와 제품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즉 본연의 아름다움을 과장하지 않고 피부를 최대한 투명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⁴⁵⁾ 그리고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복고적인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내추럴풍과 복고풍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시작하여 모방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에 맞는 메이크업으로 얼굴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선에서 기교보다는 색을, 선보다는 면을 강조하는, 짙은 메이크업보다 연한 메이크업을 하는 내추럴 지향이 더욱 진전되어 투명감 있는 피부표현에 원 포인트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쌍꺼풀, 진큰 눈, 오뚝한 코, 도톰하면서도 균형 있는 입술, 달걀형 등 서구화된 미의 개념이 반영되어 가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면서 다양화되고 전문화·과학화로 나가는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⁴⁶⁾

43) 김수정, op. cit., p. 174.

44) 강경화, op. cit., p. 95.

45) 방수진, op. cit., p. 80.

46) 한송희(2004), “메이크업 경향이 웨딩 메이크업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1.



<그림5> 1960년대 메이크업
(이능희, 태평양50년사, p. 678)



<그림6> 1970년대 후반 메이크업
(이능희, 태평양50년사, p. 680)



<그림 7> 1980년대 메이크업
이능희, 태평양50년사, 690)



<그림8> 1990년대 초반 메이크업
(향장 라네즈, 1998년 9월)

(7) 2000년대

2000년대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물광메이크업과 도자기메이크업과 같은 자연스런 패턴의 메이크업을 신부들이 선호함에 따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피부표현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웨딩메이크업이 핑크나 퍼플, 브라운에 국한되지 않고 신부의 피부 톤에 맞게 라인만 강조해주는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눈을 강조해주는 세미스모키까지 폭넓게 표현되어지고 있다.⁴⁷⁾

21세기를 맞은 미용업계의 화두는 ‘조화된 아름다움’으로 머리카락, 얼굴, 환경이 따르가 아니다. 메이크업 방법만 해도 패션, 헤어스타일과 연결된 통일감을 보여주며 자연과 환경을 해치지 않고 내 몸 역시 손상시키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심리적 치유까지 가능한 천연성분의 화장품들이 21세기형으로 각광받고 있다.⁴⁸⁾ 첨단 테크노와 퓨전, 디지털 시대라 불리 우는 2000년대는 사이버틱하고 테크노적인 메이크업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기계문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마음이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 과장된 연출이 아니 자연스런 피부 톤을 최대한 살린 내추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⁴⁹⁾ 가장 현대적이고 세련된 것은 지극히 내추럴하고 소박한 것이라는 이론으로 자연이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접촉을 원하면서도 현대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며 테크노적인 면이 가미되어 기존에는 보여 지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으로 접목되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자연의 순수가 존재하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꿈꾸는 듯한 로맨틱 메이크업에 각광하고 있다.⁵⁰⁾

2000년 이후의 메이크업 트렌드는 내추럴을 기본으로 파스텔 계열의

47) 박춘심(2001), Make-up, 서울:황문각, p. 59.

48) 서귀임, op. cit., p. 69.

49) 박춘심, op. cit., p. 61.

50) Ibid., p. 38.

색상을 이용한 로맨틱 메이크업이다. <그림 10>에서 보면 레드색상을 포인트로 했거나 비비드 색상을 메인으로 하거나 눈을 어둡게 하는 스모키메이크업이 선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내추럴을 기본으로 한 메이크업이다.⁵¹⁾ <그림 11>에서 보듯이 내추럴을 바탕으로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이용한 로맨틱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청명한 피부 톤을 연출하는 것이다. 우선 그린 색상의 메이크업 베이스로 얼굴의 홍기를 최대한 줄인 후 펄 화이트 메이크업 베이스와 컨실러를 사용하여 눈 밑 다크 라인과 T존에 섬세하게 펴준다. 또한 자신의 피부 톤보다 한 단계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였다. 파우더 또한 가벼운 색으로 사용하였고 눈썹은 자연스럽게 눈썹과 눈썹사이를 자연스럽게 메꾸어 준다. 이때 눈썹앞머리는 투명마스카라로 눈썹결을 자연스럽게 살려준다.⁵²⁾ <그림 12>에서 보면 립스틱은 페일 핑크색상이나 매트한 핑크, 살구 색상을 바르고 중앙에 좀더 진한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준 후에 투명한 립글로스로 마무리한다.⁵³⁾

51) 이현주외 3인(2004), Wedding Make up , 서울:훈민사, p. 12.

52) Ibid.

53) 강경화, op. cit., p. 102.



<그림9>1990년대 후반 메이크업
(태평양50년사, p.597)



<그림10>2000년대 스모키메이크업
(태평양50년사, p.605)



<그림11> 2000년 내추럴메이크업
(wedding 21, 2000년 3월호)



<그림12> 2011년 피치메이크업
(wedding 21, 2011년 4월호)

2) 한국 헤어스타일의 역사

(1) 개화기(1876~1926년)

개화기인 1930년대까지도 처녀들은 여전히 앞가르마를 타서 붉은 땡기로 땡은 머리를 하고 뒤로 늘어뜨렸으며 쪽을 지거나 엷은머리를 고수 하였다.⁵⁴⁾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가채(다래)를 많이 들일수록 신분은 높았으므로 알았다. 가채형식은 멀리 명나라의 수식을 본받은 것으로 높고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여 그 사치풍조와 폐단이 극심했다. 궁중뿐만 아니라 사대부 양반층의 부인들도 집안 대소사나 명절의 경우 이러한 머리 형식을 따랐다.⁵⁵⁾ 처녀의 땡은 머리 위에 드리는 땡기는 제비부리처럼 끝이 뾰족한 제비 땡기와 끝이 뭉툭한 말뚝땡기가 있었다. 땡기의 색깔은 붉은색과 자주색이 있었으며 땡기가 길고 넓을수록 자랑스럽게 여겼다. 간혹 부인들의 쪽머리에도 중심부에 장식으로 땡기를 드러서 쪽머리 가운데에 포인트를 주기도 했다.⁵⁶⁾ 1920년대 잡지와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는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서구의 머리모양, 패션 등에 대해 풍자하는 내용의 사설을 다수 실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조선 처녀의 표상은 정갈한 한복과 긴 땡기머리’라는 것이었다. 1928년 발표미상의 모 잡지에서는 한복에 땡기머리를 한 여성의 뒷모습에 대해 ‘용모가 여기에 벗어날 망정 뒤태도 만든 언젠든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며 땡기머리를 예찬하였다.’⁵⁷⁾

(2) 광복이전(1920~1944년)

20년대 초의 유행 헤어스타일에는 히사시가미·트레머리·독립머리 등

54) 김수정(2005), 한국미용100년, 서울:동서문화, p. 50.

55) 정미영(1989),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국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4.

56) 전완길 외(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서울:장원출판사. p. 90.

57) 김수정(2005), 한국미용 100년, 서울:동서문화. p. 85.

이 있었는데, 그 중 히사시가미와 트레머리 스타일은 통칭하여 서양풍으로 쪽을 졌다는 의미로 ‘양쪽졌다’고도 하고 ‘하이칼라 트레머리’라고도 불렀다.⁵⁸⁾ 동아일보 30년 4월 3일자 <신녀자의 머리 변한 경로>에 당시 20년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머리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히사시가미 스타일은 서양에서 먼저 유행하던 것을 1900년경 일본 여성들이 본떠서 유행시켰고, 그것이 한국으로 건너온 것이다. 앞머리를 둥글고 풍성하게 앞쪽으로 내민 모양으로 빗고, 뒷머리는 치켜 올려 그 속에 수세미 같은 것을 집어넣어 크고 둥글고 넓적하게 만들어 붙였다.(그림 13) 히사시가미와 트레머리는 거의 비슷한 형태이나 트레머리가 앞머리를 앞쪽으로 내밀어 부풀리는 대신 비스듬히 가르마를



<그림 13> 한복차림에 히사시가미 스타일을 한 여성(아랫줄 왼쪽)과 쪽머리(민봉기, 헤어스타일의 역사, p.56)

한 것이 달랐다.⁵⁹⁾

1920년대 중반 ‘여성 단발 논란’은 여성의 미에 대한 애착과 본능, 20세기 한국 헤어패션의 다양성을 예견하는 사회적 논란의 하나였다. 단발령 이후 남성들은 이미 상투를 틀지 않고 머리를 자르는 것이 자연

58) 김수정, op. cit., p. 83.

59) Ibid., 95.

스러운 풍습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극소수의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땡기머리, 쪽머리, 얽은머리 등의 머리형을 고수하고 있었다.⁶⁰⁾ 여성의 단발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당시의 신여성들이 머리를 자르는 것은 단순히 서양의 유행에 대해 맹목적인 추종을 했으며 머리를 잘라야 신여성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여성이 머리를 자르게 될 경우 사치풍조가 더욱 만연하게 되고 긴 머리채에서 풍겨나는 여성 특유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⁶¹⁾ 여성의 단발문제는 당시 사설이나 사회면의 톱기사로 게재될 만큼 화제 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단발은 일부 신여성들이 주장했던 ‘남성으로부터 여성의 해방’과는 무관하게 그 후 남성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풍습의 하나가 되었다.⁶²⁾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머리모양의 변화는 다양했지만 대다수의 일반 부녀자들은 문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외출을 할 때는 남녀의 내외법이 없어지지 않아 쓰개치마나 장옷으로 몸과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쪽머리를 고수하는 여성들도 많았다.⁶³⁾

국내에서 퍼머넌트가 시작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20년대 중반 이후 서구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유학과 신여성들에 의해서 최초로 퍼머가 소개되었다고 한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1937년 문과학생은 최예순을 시초로 퍼머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⁶⁴⁾ 1940년대는 서울의 경우 상당히 퍼머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퍼머넌트를 하지 말라고 떠드는 때에는 아직도 퍼머넌트가 많고 또 흰 구두가 많았습니다. 머리

60) 김춘득(2000), 미용문화사, 서울:청구문화사, p. 98.

61) Ibid.

62) 전완길 외(1995), 한국생활 100년, 서울:장원출판사, p. 50.

63) 민봉기(1995), 헤어스타일역사, 서울:장원출판사, p. 54.

64) 문숙현(1981), “한가람 봄바람에”, 서울:지안사, p. 61.

를 보면 처녀 332명 가운데 퍼머넌트가 212명, 보통이 119명이었습니다.’⁶⁵⁾ 그러나 사치품금지령의 시점이 40년 7월 7일, 유희기간이 3개월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즈음에는 금지령에 대한 일시적 반작용으로 퍼머 인구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⁶⁶⁾

65) 김수정, *op. cit.*, p. 77.

66) *Ibid.*

(3)1950년대

6·25전쟁 이후 미용계의 많은 발전과 함께 여성들의 헤어스타일도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과감하고 다양하게 변화하였으며, 숏 헤어스타일은 더욱 짧아져 ‘이탈리안 보이 스타일’, ‘햅번 스타일’로 변화되어 갔다.⁶⁷⁾ 1950년대 후반 여성들은 영화에 의해 외국의 패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영화배우의 스타일중 햅번 스타일을 가장 많이 모방하였으며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아 오고 있다.⁶⁸⁾(그림 14, 15)



<그림 14> 오드리햅번
(출처:<http://cafe.naver.com/rcsik/6759>)

검색일.4월 11일



<그림 15>1950년대헤어스타일
(출처:<http://blog.naver.com/oldcin/70099873682>)검색일.4월30일

67) 조선일보 62년 8월 12일.

68) 김수정, op. cit., p. 183.

1950년대 후반에는 약간의 변형을 주어 이마에 S자형의 작은 웨이브로 액센트를 주기도 하였으며,(그림 16) 한복이나 정장에 어울리는 스타일로 머리를 땀아 틀어 올리는 스타일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림 16> S자형의 웨이브 헤어스타일
(여원,1957년,5월호)

또한 1956년부터 1958년경까지 유행했던 ‘부환 스타일(부우관 스타일)’은 짧은 숏커트의 반동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웨이브가 부드럽고 볼륨감이 있는 여성적 스타일이었다. 69)

(4) 1960년대

1960년대 초에는 앞머리 부위와 귀 양 옆에 부푼 양감을 준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정수리 부위에 머리심을 넣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최대한 부풀린 스타일이다. 1960년대를 기준으로 업스타일이 점차 유행하였으며⁷⁰⁾ 퍼머는 곱슬거리게 하여 외출 시에 고데기로 컬을 말아서 굵은 웨이브를 만들거나 크라운(crown) 부위를 높게 살린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그래서 당시의 여성 잡지에서는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69) 권구정의5인, op. cit., p. 77.

70) 강경화(2000), 메이크업 총론, 서울:APC, p. 46.

있는 핀컬방법'이 자주 소개될 만큼 핀컬이 유행하였다.⁷¹⁾



<그림 17>재클린 케네디여사
(티나산티, 워너비재키자서전, p. 50)



<그림 18>육영수 여사
(박목월, 육영수여사자서전, p. 79)

<그림 17>에서 보듯이 재클린 케네디 부인의 업스타일도 큰 호응을 얻었던 스타일은 꿀벌집 모양의 머리형으로 15C 이탈리아 화가 안토니오 피사넬로가 디자인한 머리형과 비슷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었다. 1960년대 중반 경에는 양 귀 옆으로 머리를 내려 앞 라인을 반달형으로 하는 보브 스타일이 인기를 모았다. 또한 1960년대 후반에는 세계적으로 '미니 컷'이라 하여 짧게 커트를 한 후 톱 부분을 세팅이나 핀컬, 부분가발로 부풀린 형태가 유행했다.⁷²⁾

<그림 18>에서 보듯이 백조라인은 백조가 가진 우아한 실루엣을 머리에 표현한 것으로 부드러운 웨이브를 사이도와 후두부에 준 풍만하고 온화한 스타일로 후두부의 가운데로부터 약간 밀므로 바람에 날린 듯 털끝을 올리고 앞부분은 이마를 내보이는 스타일로 나중에 듀오라인과

71) 민봉기, op. cit., p. 54.

72) 민봉기, op. cit., p. 82.

같은 로맨틱한 스타일로 변화되었다.⁷³⁾ 1960년대는 사치스러운 헤어 액세서리의 하나로만 생각되어 왔던 가발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대중화된 가발은 거의 모든 여성들 사이에서 필수품의 하나가 되었으며 1970년대까지 유행하였다.⁷⁴⁾ 가발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국내 가발 제조업체도 활성화되어 갔다. 가발의 종류에는 긴 달비, 작은 달비, 전체 가발, 부분 가발 등이 있었다. 특히 여러 가지 인조 모발로 된 각양각색의 헤어밴드 등 그 종류나 명칭까지 다양하였다.⁷⁵⁾ 본래 가발은 인모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46년경부터는 나일론제품이 보급되어 값이 싸고 관리가 용이하게 되었다.

(5) 1970년대

1970년대 초반에는 굵은 웨이브로 정수리 부분이나 정수리 아랫부분을 부풀려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⁷⁶⁾(그림 19)



<그림 19> 부드러운 컬과 볼륨의 맥시 스타일
(여원,1977년,5월호)

73) 문숙현, op. cit., p. 90.

74) 김수정, op. cit., p. 222.

75) Ibid.

76) 김수정, op. cit., p. 191.

1970년대는 집시풍의 흐트러진 듯한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국내의 헤어스타일 역시 이러한 주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론으로 세트한 머리보다는 커트만으로 다듬은 자연스러운 머리, 가벼운 퍼머로 웨이브를 만들어 혼자 손질한 머리, 물을 말아 부드러운 웨이브가 생긴 머리등이 인기를 모았다.⁷⁷⁾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모든 스타일에 브로우 드라이 기법이 응용되어 바람에 날리는 듯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커트의 경우 1975년 이후 상고형 커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⁷⁸⁾ 1960년대를 기준으로 업스타일이 점차 유행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점차 퇴조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우아하고 클래식한 여성미를 표현하는 기법으로 복고적인 경향과 더불어 다시 유행하였으며 심플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업스타일 디자인이 다양하게 응용되어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있었다.⁷⁹⁾ 1970년대 중반 이후 선풍적으로 유행했던 스타일은 일명 ‘바람머리’였는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일반화되면서 보다 활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헤어스타일이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머리를 간편하게 손질하기 쉬운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전까지의 세트나 아이론을 이용한 웨이브 스타일은 사라지고 영국의 미용가 헤럴드 레이턴에 의해 고안된 브러시로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브로우 드라이 기법’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바람머리가 유행하게 되었다.⁸⁰⁾

(6) 1980년대

1980년대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비대칭 헤어스타일로 형클어진 머리카나 굵은 웨이브 머리가 유행하였고, 1980년대 초에는 여대생이나 직장여성들을 중심으로 핑크 헤어 또는 디스코 머리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퍼머의 전성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중반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풀어헤친 웨이브 스타일이, 중반 이후에는 상고스타일의 단발에 웨이브를 넣어 앞머리를 세우거나 롱

77) 김수정, op. cit., p. 231.

78) 이규태, op. cit., p. 122.

79) 김수정, op. cit., p. 231.

80) Ibid.

레이어 스타일에 웨이브를 넣고 가르마를 중심으로 양 옆머리를 세우는 스타일이 크게 유행하였다.⁸¹⁾

1980년대 초 신군부의 독재정권이 문화적 개방을 통하여 고등학교의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지면서⁸²⁾ 일자형의 보브 스타일 일색이던 여학생들의 헤어스타일 역시 점차 개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화되어 갔으며,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된 클리퍼는 이러한 여학생들의 헤어스타일에 혁신을 가져왔다.⁸³⁾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영국의 황태자비인 다이애나비의 상고형 커트머리에 앞머리를 약간 가린 듯한 바람머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으며, 이 스타일은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크게 유행하였다.⁸⁴⁾ 1980년대 초 등장한 웰라폼의 인기는 대단했다. 빨간색 용기에 들어있던 웰라폼은 치약처럼 짜서 쓰는 왁스 스타일의 스타일링 제품이었다. 커트나 퍼머를 한 후 마무리용의 스타일링 제품이 없었던 1980년대 초반 웰라폼은 미용실의 ‘스타일링 마무리 제품’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시대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로는 당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닭벼슬머리(일명 자존심머리)가 있었는데 이 헤어스타일은 먼저 7:3 비율로 가르마를 한 다음 앞머리는 눈썹 약간 밑부분에서 커팅한 다음 드라이어로 볼륨을 넣었다.⁸⁵⁾ 스프레이와 무스의 헤어 스타일링은 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 초반까지도 사용하였다.

(7) 1990년대

199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은 언밸런스로 TV드라마 ‘질투’

81) 전원길 외(1995), 한국생활문화100년, 서울:장원, p. 94.

82) 문옥표(1997), 한국인의 소비와 문화생활,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79.

83) 문옥표, op. cit., p. 80.

84) 이규태, op. cit., p.95.

85) 김춘득, op. cit., p. 98.

에 나온 최진실의 헤어스타일로 뒤쪽은 상고형 커트를 한 후 뒷머리보다 앞쪽이 더 길게 사선형으로 단발한 보브 스타일이었다. 언밸런스형의 또 다른 형태는 숏커트를 한 후 7:3으로 가르마를 하고 한쪽은 눈을 가릴 만큼 길게 기르고, 한쪽은 귀 위쪽으로 짧게 잘라 귀 뒤로 넘기는 스타일이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특별한 유행 스타일이 없었으며, 60년대 복고풍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닌 90년대에 잘 어울리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활동적인 이미지로 변형시켜 전 시대에 비해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공존했다.⁸⁶⁾

1980년대 웨이브 스타일은 1990년대 초반까지 나타났지만 1980년대의 웨이브 스타일이 일반 룩드에 의한 기본 웨이브 스타일이었던 것에 반해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 룩드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변형 형태의 웨이브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다.⁸⁷⁾ 룩드의 종류와 길의 형태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했는데 레게 퍼머, 다이어트 퍼머, 뿌리 퍼머, 부메랑 퍼머, 나이가가라 퍼머, 폭탄 퍼머 등 다양한 웨이브 스타일이 공존했다.⁸⁸⁾ 모발 염색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염색의 종류 또한 염색제나 염색의 방식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어 이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의 색깔을 머리 부분에 넣어서 헤어 전체의 색이 주는 입체감을 즐겼다.⁸⁹⁾

86) 문옥표, op. cit., p. 89.

87) 전완길(1995), 한국생활100년, 서울:장원출판사, p. 102.

88) 전완길, op. cit., p. 90.

89) 김수정, op. cit., p. 308.

Ⅲ. 1980~2000년대의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변천사

1.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1)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

1980년대 초반의 웨딩 메이크업은 화려함이 강조되어 다양한 컬러를 많이 사용했고, 색 자체가 썬이 많이 들어 있었다. 아이섀도 색상으로는 썬이 함유된 핑크와 퍼플, 블루 색상등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입술은 핑크색상이 주를 이루었다.⁹⁰⁾ 1980년대 중반부터 웨딩 메이크업은 내추럴풍으로 변하여 깨끗한 피부표현을 중심으로 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아이섀도 색조는 밝고 투명한 색조를 사용했고, 눈꼬리쪽으로 엑센트를 주어 생동감을 느끼게 하였다.⁹¹⁾ <그림 20>에서 보듯이 아이라인도 펜슬 형태의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아이라인 메이크업을 하고 마스카라로 눈매를 강조하였고 볼터치는 아이섀도와 립 메이크업의 색조에 맞추어 강하게 해주었다.⁹²⁾ 그리고 눈썹은 두께가 굵고 짙게 하였으며, 형태는 완만한 곡선이나 약간 각지게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아이섀도 컬러의 톤을 낮추고 포인트는 레드색상 입술에 두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웨딩 메이크업 패턴이 점차 내추럴풍으로 변하여 깨끗한 피부 표현을 중심으로 한 자연스런 메이크업 방법이 행해졌다. 이러한 1980년대 중반 웨딩 메이크업은 밝고 투명하며 부드러운 스킨, 페일 핑크, 브라운의 색상을 사용하여 세련되어졌고, 아이 메이크

90) 방수진(2001), 메이크업 아트, 서울:성화. p. 79.

91) 박춘심(2001), Make-up, 서울:황문각. p. 90.

92) Ibid., p. 91.

업은 눈의 아이 홀 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좁은 부위에 바르고 눈꼬리 쪽에는 액센트를 주어 생동감이 느껴지게 하였다.⁹³⁾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개성화가 뚜렷해져서 다양한 컬러의 색도를 사용하였으며, 립은 진한 레드나 와인 색상이 대중적으로 유행하였고, 글로시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매트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2) 198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웨딩 헤어스타일은 복고적이고 풍성하게 부피감을 살린 스타일로 앞머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빗어 내린 뱅스타일이나 백콤을 넣어 탑부분을 높이 세운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비대칭 헤어스타일로 굵은 웨이브 머리가 유행하였으며, 헵번 스타일에 앞머리를 스프레이로 세워 고정하는 머리도 유행하였다. <그림 21>에서 보면 C컬의 웨이브를 손으로 만들어 모양을 내었으며 후두부 모양도 마찬가지로 C컬의 뱅을 만들어 표현하였던 쪽머리 또한 1980년대의 대표적 헤어스타일이다.⁹⁴⁾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웨딩 헤어스타일은 C컬의 뱅으로 모양을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과할정도의 볼륨을 넣은 다음 티아라 보다는 생화나 화관 장식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웨딩 헤어스타일은 앞머리를 높이 세웠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중반 보다는 자연스런 앞머리스타일을 선호하였다.

93) Ibid., p. 45.

94) 전완길(1987), 한국 화장문화사, 서울: 열화장. p. 60.



<그림 20>1980년대 메이크업
(wedding 21, 1988년 3월호)



<그림 21>1980년대 헤어스타일
(my wedding, 1989년 3월호)



<그림 22>1990년대 메이크업
(my wedding, 1998년 5월호)



<그림 23>1990년대 헤어스타일
(my wedding, 1999년 9월호)

2.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1)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

1990년대 메이크업은 자연스런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웨딩메이크업에서도 브라운 색상의 메이크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이섀도는 오렌지와 브라운, 산호색, 핑크 색상등이 사용되었으며 입술은 핑크계열 함께 와인이나 레드계열 색상이 자주 사용되었다.⁹⁵⁾ <그림 22>에서 보면 1990년대 초반 웨딩메이크업은 피부 톤이 두껍고 어둡게 느껴졌으며, 눈썹 역이 가늘거나 굵으며 짙은 색상의 형태가 많았고, 완만한 곡선이나 각을 이루게 그렸다. 오렌지, 브라운, 핑크 색상의 섀도를 선호하였고, 아이홀 메이크업이 유행하여 입체감 있는 눈매를 강조하였다. 립스틱 색상도 짙은 색으로 입술을 강조하는 화장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볼터치도 강하게 했다.⁹⁶⁾ 199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웨딩 메이크업은 핑크계열 보다는 갈색이나 오렌지 계열의 섀도 색상을 주로 사용하였다. 입술은 붉은톤(빨강, 핑크)을 선호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밝아진 피부 톤과 자연스러운 눈썹형태, 화사하고 브라운 색상의 섀도를 많이 사용했으며 눈썹의 모양도 부드럽고 화사한 피부 톤에 립스틱도 핑크계열이나 브라운계열과 맞는 벽돌색이 주를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강세를 띄어서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는 순수한 신부의 모습을 표현하는 메이크업을 하였다.⁹⁷⁾<그림 24>에서 보면 피부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전체적으로 깨끗한 피부색을 정리해주고 파우더로 자연스러우면서 투명한 피부 톤을 눈썹은 스크루(scrow) 브러시로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빗어 정리하

95) 양덕재(1998), 최신화장품학(상), 장업신보, p. 90.

96) Ibid., p. 91.

97) 강경화(2000), 메이크업 총론, 서울: APC, p. 176.

고 아이라인은 자연스럽게 눈썹은 마스크라로 풍성하고 볼륨감있게 표현하였다.

2) 199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웨딩 헤어스타일은 프린지(fringe) 모발은 백콤을 넣어 볼륨을 주거나 뱅으로 연출하였고, 올백스타일 또는 자연스럽게 옆가르마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앞머리를 연출하였다. 전체적인 볼륨감은 백포인트 위치에 주거나 네이프 포인트에 볼륨감을 형성하여 땅거나 꼬기 기법으로 쪽머리 스타일을 변형한 단아하고 전통적인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많이 선호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웨딩 헤어스타일에서도 컬러링이 일반화되면서 화려한 컬러가 유행하였다.⁹⁸⁾ 1990년대 후반에는 앞머리를 꼬거나 땅아서 깔끔하게 올린 머리를 선호하였다. 앞머리를 꼬는 머리는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뒷머리는 앞머리의 볼륨에 맞추어 높이 올려 더욱더 신부가 돋보이게 하였다.(그림 23)

3. 200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1) 2000년대 웨딩 메이크업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웨딩 메이크업이 정형화된 스타일에서 내추럴한 스타일의 연출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분위기를 내기위해서 아이메이크업을 열게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기위해 입술도 글로시하게 연출 했으며 밝은 색상의 아이섀도로 눈이 더 커 보이는

98) 김춘득(2000), 미용 문화사, 서울:청구문화사, p. 231.

효과를 내었으며 아이라이너와 마스크라로 깊이 있는 눈매를 연출하였다.⁹⁹⁾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많은 웨딩 메이크업은 이후에도 계속 2010년 현재까지 이어져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톤을 살려주고 투명 파우더로 마무리해서 가벼운 느낌을 주도록 하였으며, 대신 눈매가 길고 또렷하게 보이도록 하기위해 아이라인으로 눈매를 강조하고 속눈썹을 이용해 깊고 풍성한 눈매를 연출하였다. 또한 2000년대 웨딩 메이크업은 눈매를 강조한 대신 입술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표현하였고 입술은 라인선을 없애고 글로시한 느낌을 강조한 립스틱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불터치는 귀엽고 어려보이는 신부의 이미지를 주었으며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 톤과 크고 또렷한 눈망울을 연출해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신부로 돋보이게 있다. 이 시기의 메이크업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투명한 피부 톤으로 신부의 화사함을 강조하기 위해 메이크업부터 피부색보다 한 톤 밝게 연출하였다.¹⁰⁰⁾

2000년부터 계속되어져 오는 포인트 메이크업은 눈 코 입에 비중을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개성에 맞춰 장점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눈을 강조할 경우에는 입술은 연하게, 선명한 입술선을 강조할 때에는 눈매를 은은하게 표현해야 한다는게 특징이다.¹⁰¹⁾ 2000년대를 넘어서 현재까지의 웨딩 메이크업 스타일은 내추럴한 피부표현에서 좀더 촉촉하고 깨끗한 도자기 같은 피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¹⁰²⁾

2001년 S/S 웨딩 메이크업은 2000년의 파스텔 계열 컬러에서 보다 화려해진 비비드 컬러의 행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4>에서 2001년 웨딩 메이크업은 컬러뿐 아니라 재질감에서도 젤리처럼 부드럽고

99) 이혜성(1996), 메이크업 , 서울:정문각, p. 64.

100) 이혜성. op. cit. p. 68.

101) 방수진, op. cit. p. 70.

102) 강경화(2000), 메이크업 총론 , 서울:APC, p. 180.

유동성 있는 재료들이 등장하여 더욱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표현되는 질감도 컬러풀하면서도 피부 톤에 밀착되는 듯한 자연스러움을 유도하였다. 2001년 가을/겨울에는 웨딩 메이크업의 기본 색상인 브라운에 스모키 무드의 영향으로 그레이가 가미되었다. 마치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음영을 만드는 다크 아이 메이크업은 가을/겨울 메이크업과 무관하다.

2002년 S/S 웨딩 메이크업에서도 캔디처럼 달콤한 파스텔 메이크업은 이어졌는데, 파스텔 메이크업은 보다 젊고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에서 보면 아이섀도는 민트 그린의 가장 인기를 얻었지만, 퍼플이나 블루 색상등도 많이 쓰여졌으며 쌍거풀 라인에 옐로 컬러로 밝고 화사하게 포인트를 주었다. 또한 그린 색상의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은은하게 터치하고 입술은 플로럴 핑크 립스틱으로 표현했다. 2002년 F/W 웨딩 메이크업에서는 칼라만큼이나 질감(texture)표현에 비중을 두어 그 중에서도 골드 톤의 고급스러운 광택이 인기를 얻었는데, 기존의 화장품에 골드펄을 첨가하여 큰 효과를 얻었다.¹⁰³⁾ 이때 아이섀도는 브라운과 그레이, 와인, 카키, 블루 색상을 중심으로 한 차분한 색상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입술도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축축하게 표현해준다.

2003년 S/S 웨딩 메이크업 역시 여성성을 강조한 로맨틱 이미지와 여성스러움을 극대화시킨 페미닌 색상이 유행하였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 톤을 강조한 후 핑크색으로 혈색을 표현하는 메이크업이 주목받았다. <그림 26>에서 보면 특히 이번 시즌의 유행색은 오렌지로 프레시한 반짝임의 그린 색상의 눈매, 투명한 반짝임이 있는 오렌지 색상의 입술에서 우울한 현실을 잊고 행복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으며 치크 표

103) 김춘득, op. cit., p. 131.

현은 핑크와 오렌지 색상을 섞어 활력과 화사함을 연출해 에너제틱(energetic)한 봄을 묘사했다. 2003년 F/W 웨딩 메이크업 경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명도나 채도가 강하지 않은 부드러운 색상이 주를 이루면서 반면 활기를 부여하는 강한 색상을 포인트로 작용하였으며 반짝이는 펄과 강렬한 색상의 포인트 메이크업이 대두되어 예전보다 더욱 화려해졌다. 2003년 F/W 웨딩 메이크업은 전통적인 가을컬러인 와인에 바이올렛, 퍼플이나 레드가 가미된 강한 브라운 색상이 다시 등장하면서 다소 복고풍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스모키 메이크업의 립컬러로 일반적인 레드부터 진한 레드까지 메인컬러로 부각되거나 서브컬러로 제시돼 빨간 립스틱이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또한 강렬한 스모키 메이크업이 부담스러운 여성들에게는 브라운과 베이지 등의 컬러로 부드러운 톤을 유지한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는데 부드러움이 주는 색상이 단조로움이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펄 제품이 주는 여성미를 극대화시켰다.

2004년 S/S 웨딩 메이크업은 로맨틱 경향으로 투명하고 뽀얀 피부에 꼭 어울리는 달콤한 캔디 색상이 눈과 입술을 사로잡고 있다. 핑크, 오렌지, 옐로, 그린, 블루, 바이올렛 색상의 아이섀도가 보여 지고 오렌지, 핑크 색상의 립스틱이 대거 선보였으며 가을, 겨울 색상으로만 여겨지던 베이지와 브라운색상도 조심스레 등장했고 레드색상도 빠지지 않았다. 밝은 파스텔 톤을 메인 색상으로 사용하나 형광빛 보다는 낮게, 파스텔 톤보다는 비비드한 색상으로 색감은 살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오버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표현해준다.<그림 27>에서 보면 색깔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할 경우 입술은 립밤이나 거의 색감이 표현되지 않게 투명 립글로스 정도로만 마무리해야 한층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2005년 S/S 웨딩 메이크업은 색상이 사랑스럽고 달콤한 핑크에서부터 촉촉하고 글로시한 리얼 레드에 이르기까지 고급스럽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8>에서 보면 내추럴한 피부 톤 표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촉촉한 텍스처로 피부 질감을 연출하였고 커버력이 좋은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발라준 다음 아주 소량의 파우더만으로 투명한 피부 표현을 하는데 특징이 있었다.

2006년 S/S 웨딩 메이크업은 투명하게 피부를 커버하고 화이트 펠로 핑크 색상의 아이섀도를 믹스해 화사한 눈매를 연출했다. 아이라인을 강조해 눈매를 또렷하게 하였다.

2007년 S/S 웨딩 메이크업은 그린과 옐로 색상의 메이크업이 시선을 모았다. <그림 29>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피부 톤에 화이트 펠로 그윽하게 빛나게 눈과 홍조 락 볼, 선명하게 빛나는 레드 립글로스가 매혹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2008년 S/S 웨딩 메이크업은 밝고 가벼운 피부 톤이 눈길을 끄는 투명 메이크업을 선보였으며, 피부 결을 원래 피부 톤보다 한 톤 밝게 투명하고 화사하게 정리하고 아이라이너로 길이 있는 눈매를 표현했다.

2009년 S/S 웨딩 메이크업은 고급스럽고 차분한 인상은 연출하기에 좋은 오렌지 컬러가 유행하였고, 아이섀도를 쌍거풀 라인에 퍼 바르고 속눈썹을 붙여 깊고 그윽한 눈매를 연출하였다.

2) 2000년 웨딩 헤어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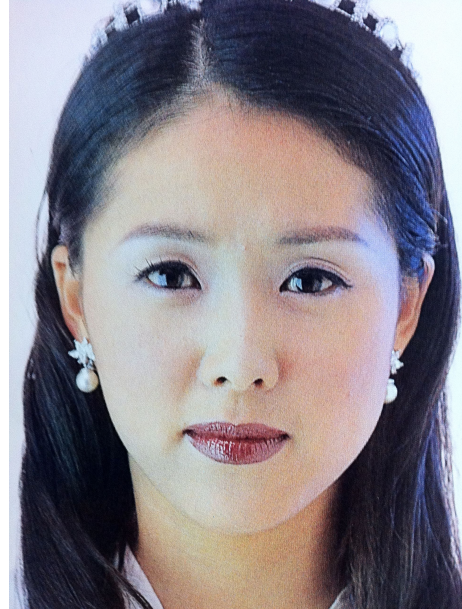
웨딩 헤어스타일은 고전적이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에 많이 유행하였고 전체적으로 풍성한 웨이브로 볼륨감을 주었으며 땅거나 꼬아서 또는 둥근 뱅을 만들어 긴머리 그대로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로 앞가르마와 옆가르마를 이용한 아주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화려한 컬러가 웨딩 헤어스타일에서 유행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화려한 컬러링이 약세를 보였다. 2000년대 초반에 웨딩 헤어스타일은 1990년도 보다 뒷머리가 자연스럽게 변화하였지만, 앞머리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90년대에는 앞머리를 3칸에서 4칸의 틸을 떠서 얼굴형에 맞추어 볼륨을 살린 뒤 고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앞머리의 칸을 정당한 간격으로 나누어 정형화되게 연출하였다. 2000년대 업스타일을 커트 퍼머, 브로우 드라이와 함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만질 수 있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림 30>에서 보듯이 2000년대 중반에는 단아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웨딩 헤어스타일이 강세였는데 앞머리는 볼륨을 줘 자연스럽게 넘기고 뒷머리는 땡아 톱 부분에 자연스럽게 올렸으며, 뒷머리의 땡아 올린 부분은 가발로 고정을 하여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지지 않게 표현하였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2000년대 후반에는 옆가르마를 이용해 앞머리는 올리고 뒷머리는 자연스럽게 땡아 목 아래로 늘어뜨렸으며, 2강한 웨이브보다는 자연스러운 C컬의 웨이브로 핀으로 많이 고정하지 않고, 앞머리만 고정한 뒤 뒷머리는 내추럴하게 연출하였다. 웨딩 헤어스타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깔끔하게 올린 헤어스타일 보다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림 24>2001년 S/S 메이크업
(wedding 21, 2001년 5월호)



<그림 25>2002년 F/W 메이크업
(wedding 21, 2002년 11월호)



<그림 26>2003년 S/S 메이크업
(wedding 21, 2003년 5월호)



<그림 27>2004년 S/S 메이크업
(my wedding, 2004년 3월호)

4.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1)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

2010년도 S/S 웨딩 메이크업은 피부의 결을 최대한 살려 자연스러운 면서도 깨끗한 피부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림 32>에서 보듯이 주조색은 내추럴 베이지 파운데이션이고, 보조색은 핑크와 살구색상을 섞은 블터치와 살구색상의 펄이 가미된 아이새도를 사용하였고, 강조색은 브라운 색상 아아라인으로 성숙한 느낌을 주는 신부로 표현한다. 또한 웨딩은 양쪽 이마와 목선에 세로로 표현하여 좀더 목선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게 한다.¹⁰⁴⁾

2011년 웨딩 메이크업은 그레이 색상의 새도 베이스에 아이라인, 언더라인 끝부분에만 다크 네이비 색상의 새도로 포인트를 주었고, 속눈썹을 눈초리 쪽으로 붙여 세련된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¹⁰⁵⁾<그림 33>에서 보듯이 언더라인 앞머리 부분에는 크림 펄 새도로 화사한 느낌을 더했고, 아이스 핑크 색상의 립스틱과 블러셔로 도시적이면서도 내추럴하게 마무리했다. 또한 화사하고 발랄한 느낌을 내기 위해 파운데이션으로 얇고 가볍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다. 눈매는 또렷하고 입술은 글로시하게 표현해 어린 신부같이 귀여운 느낌이 주었으며,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은 수채화 느낌의 색조를 사용하여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그린이나 핑크 색조로 메이크업을 하였다. 2011년 S/S 웨딩 메이크업에서는 자연스러운 피치 메이크업이 주조를 이루었는데, 딥스킨 모이스처라이징 케어를 바탕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골드 피치와 핑크 색상을 사용해 단아하고 깨끗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104) 박춘심(2001), Make-up, 서울:황문각, p.90.

105) Ibid.

2) 201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1) 내추럴 반업스타일

2010년도에 들어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살려서 정형화된 모습을 탈피한 웨딩 헤어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¹⁰⁶⁾ 고정화된 모습을 탈피한 웨딩 헤어스타일은 위로 완전히 올렸을 때와는 다른 귀여운 분위기나 단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그림 34>에서 보면 2011년에 목덜미 부분부터 느슨하고 자연스럽게 땀은 머리를 정수리를 기준으로 잡고 올려 고정하였으며 앞머리는 따라 내려 도도하면서도 내추럴한 이미지가 전해졌다. 200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은 전체적으로 강한 웨이브를 만들어 완성한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C컬의 웨이브를 표현하여 웨이브의 결을 그대로 살려 헤어스타일을 완성하였다.

(2) 내추럴스타일

2010년도에는 반업스타일은 물론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물결 웨이브나 굵은 아이롱으로 시술한 웨이브를 그대로 살려서 연출한 웨딩 업스타일은 볼 수 있다. <그림 35>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 땀아 내린 머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이롱으로 시술한 웨이브를 한올 한올 꼬아서 뒤에서 고정시켜 앞에서는 단정하지만 옆에서는 내추럴한 내린 머리를 하였다. 2011년에는 핀으로 고정시키거나 가발을 대는 헤어스타일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살린 뒤 충분히 볼륨을 넣은 단발머리도 유행하였으며 잔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기보다는 내추럴하게 흘러내리는 표현을 강조하였고,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인 만큼 티아라로 고정하기 보다는 코사지로 연출하여 귀엽은 신부이미지를 표현하였다.

106) 민봉기, op. cit., p. 87.



<그림 28> 2005 S/S메이크업
(wedding 21, 2005년 5월호)



<그림 29> 2007 S/S메이크업
(wedding 21, 2007년 6월호)



<그림 30> 2000년대 중반 헤어스타일
(wedding 21, 2005년 5월호)



<그림 31> 2000년대 후반 헤어스타일
(wedding 21, 2009년 9월호)



<그림 32> 2010년 S/S메이크업
(my wedding 2008년 3월호)



<그림 33> 2011년 S/S메이크업
(my wedding 2011년 3월호)



<그림 34> 2011년 반업스타일
(my wedding 2011년 3월호)



<그림 35> 2011년 내추럴업스타일
(my wedding 2011년 3월호)

V. 작품제작

1.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제작

1980년대 초반 웨딩 메이크업의 특징은 컬러TV등장으로 색상에 주안점을 두게 되어 포인트 메이크업이 유행하였으며 아이 메이크업도 눈 주위를 강한 색상으로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고, 두꺼운 눈썹에 어울리는 레드 색상의 립스틱과 핑크, 퍼플, 브라운 색상의 아이새도를 사용한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웨딩 메이크업 패턴이 점차 내추럴 풍으로 변하여 깨끗한 피부 표현을 중심으로 한 자연스런 메이크업 방법이 행해졌다. <그림 36>에서 보듯이 1980년대 초반의 메이크업의 특징을 살려 웨딩 메이크업을 재현해 보았다. 눈썹은 가늘고 끝이 길게 표현하였고, 눈은 블랙 색상으로 끝부분을 강조하였으며, 립은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비비드한 레드 색상의 립스틱으로 표현하였다.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은 재현함에 있어 2011년도 트렌드에 맞게 레드 색상의 립스틱을 선택하였으며, 다소 무거운 감이 없이 귀여운 신부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입술 안쪽만 연출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아이새도로 사용된 브라운 색상은 차분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좋으며, 아이새도 색상을 강조하지 않은 맑고 투명한 이미지의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신부를 위해 브라운과 베이지 색상의 메이크업을 한 다음 다크 브라운 색상의 펄 새도로 포인트를 주었다.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은 다크 브라운색상의 아이새도를 눈 전체에 펴 발라주었지만, 2011년 메이크업은 단순히 브라운 색상을 내는데 그

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브라운색상의 필감있는 색도로 아이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그림 36>에서 1980년대 메이크업은 재현은 그 시대에 유행했던 브라운 색상의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을 표현하였고, 피부 표현은 투명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본래 피부 톤에 가깝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눈 아래쪽은 골드와 화이트색상이 섞인 스타 파우더를 눈 앞머리에만 발라주어 깊이 있는 눈매를 완성하였다. 또한 아이라인은 블랙색상으로 눈 안쪽의 점막을 메꾸어 주듯이 표현하여 자연스럽게 그윽한 눈매를 연출하였다.

198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은 헵번 스타일이 주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1980년대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들도 헵번 스타일을 하였으며 일반 대중들로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그림 37>에서 보면 앞머리는 귀여운 느낌을 주는 C컬의 뱅 스타일은 하였으며, 뒷머리는 볼륨을 주어 탑 부분의 위쪽으로 높이 올려서 작품을 재현하였다. 이러한 헵번 스타일은 키가 작은 신부들에게 선호되어졌으며, C컬 모양의 앞머리를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였다. <표 2>에서는 198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 순서를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업스타일 하기 위해 먼저 와인딩을 한 다음, 신부의 얼굴형에 맞게 가르마를 선택하였고, 정수리부터 네이프까지 백콤을 넣는다. <그림 37> 모델의 뒷면에서 보듯이 크라운 부분에 머리를 묶고 네이프 부분은 핀 처리를 한 다음, 귀 양쪽에 백콤을 넣고 뒤쪽 크라운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T.P에 있는 볼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백콤을 넣어 반달모양으로 곱게 빗질을 하여 스프레이로 마무리하였다.


<표 1>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업지시서

표현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립 컬러를 강조한 포인트 메이크업을 표현 •아이라인과 속눈썹은 뒷부분만 강조
표현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컬러 메이크업베이스1호, 비디비치 레드색상 립스틱 231번, 인조 속눈썹RH1, 시실리파운데이션 아이보리, 퍼프 등
작업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색의 파운데이션과 피부색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바른다. •인조왁스로 눈썹끝부분만 가려주고, 눈썹선을 가늘고 길게 그려준다. •눈의 끝부분에 인조 속눈썹을 붙여준다.



<그림 36> 작품 I .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

<표 2> 198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 지시서



작업 순서

1. 업스타일을 하기 위해 먼저 세트롤을 와인딩한다.
2. 셋팅 된 헤어롤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브록킹을 한다. 가르마면저 정하고 귀뒷선인 네이프까지 가르마를 타고, 정수리부터 네이프까지 백콤을 넣는다.
3. 크라운부분에 머리를 묶고 네이프 부분은 핀 처리를 하여 위로 올려 준다.
4. T.P에 백콤을 넣어 반달모양으로 곱게 빗질을 하여 스프레이로 마무리한다.



<그림 37> 작품 Ⅱ. 198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표 3> 1980년대 업스타일 재현과정

스타일링 작업순서		
 <p>1. 브로킹</p>	 <p>2. 섹션 옆면</p>	 <p>3. 네이프</p>
 <p>4. 웨이브 섹션</p>	 <p>5. 섹션 앞면</p>	 <p>6. 좌측 옆면</p>
 <p>7. 우측 옆면</p>	 <p>8. 뒷면</p>	 <p>9. 정면</p>

2.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작품제작

1990년대는 에콜로지풍을 영향으로 자연스런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웨딩 메이크업에선 브라운 색상의 메이크업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아이 새도는 오렌지와 브라운, 산호, 핑크 색상등이 사용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아이홀 메이크업이 유행하여 입체감 있는 눈매를 강조하였다. 또한 내추럴풍과 복고풍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움’을 나타나기 시작하여 모방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에 맞는 메이크업으로 얼굴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메이크업이 선보였다.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은 기교보다는 색을, 선보다는 면을, 짙은 메이크업보다 연한 메이크업을 하는 내추럴 지향이 더욱 진전되어 투명감 있는 피부표현에 원 포인트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그림 38>에서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의 특징을 살려 베이스로 파운데이션은 리퀴드 타입으로 표현하였고, 립 색상은 와인을 사용하였으며, 눈매는 핑크와 퍼플 색상을 섞어 아이홀로 눈매를 강조하였다. <그림 38>에서 보면 모델선정은 아이홀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는 모델로 구성하였고, 아이홀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아이새도 퍼플 색상으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퍼플 색상은 눈매를 매혹적이고 신비롭게 연출해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퍼플 색상을 단독으로 보다는 브라운, 화이트, 핑크 색상등과 같이 사용을 하는데, 눈두덩이 전체에 브라운 색상을 펴 바른 후 아이라인을 따라 퍼플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면 깊이 있고 지적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웨딩 메이크업작업 순서는 화이트 펄 새도를 베이스 색상으로 사용하여 눈두덩전체에 하이라이트를 준 후 쌍거풀 라인을 퍼플 색상의 아이새도로 터치하고 눈 밑에도 같은 색상의 아이새도로 라인을 그려 깊은 눈매를

완성하였다. 화이트 색상의 새도를 사용할 때 신부의 눈매가 부어 보이지 않는 눈매라면 전체적으로 바르지만, 신부의 눈매가 부어 보인다면 화이트 색상 대신에 베이지 색상의 펄 아이새도를 눈 중앙 쪽에만 펴 발라주는 것이 좋다. <그림 38>에서 입술은 같은 퍼플 색상위에 딸기우유컬러의 립스틱을 발라서 표현하였다. 1990년대에는 퍼플과 같은 색상의 다크한 퍼플 색상의 매트한 립스틱을 선호하였지만, 작품 재현할 때는 2010년에 유행하였던 딸기우유 색상의 립스틱을 선택하였다. 또한 2010년대에는 스모키 메이크업에 입술은 상대적으로 연한 색상을 씌여 눈매를 더욱 더 강조하는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이 다시 유행하였다. <그림 38>에서 눈매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볼터치를 입술과 마찬가지로 내추럴하게 컬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윤곽만 볼륨을 줄 수 있게 표현하였으며 볼터치는 베이스로 사용한 파운데이션과 섞어 볼 중앙에만 사용하여 얼굴이 작아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199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은 땡거나 꼬는 머리가 유행하였으며, 2011년에도 1990년대 땡는 머리가 약간 변형이 되어 다시 대중적으로 유행이 되었다. <그림 39>에서 보면 앞머리부분을 땡아서 얼굴앞쪽으로 머리가닥을 끌어 당겨서 얼굴이 작아보이게 한 다음 코사지나 머리띠로 내추럴하게 표현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먼저 세트를 와인딩하고 가르마는 양쪽 E.P로 나누고 크라운과 G.P로 한번 더 나눈 다음 크라운에서 네이프까지 전체적으로 백콤(backcomb)을 넣는다. <표 6> 5번에서 보듯이, 네이프부터 C컬의 롤을 말아 U핀으로 고정하고 꼬리빗 끝부분에 젤을 묻힌 다음 E.P에 있는 헤어를 3등분하여 땡아서 마무리 하였다.

<표 4>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업지시서

표현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재현
표현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크업 베이스 그린1호, 크리닉 파운데이션02호, 파우더, 슈에무라립스틱344호, 맥립스틱 크림킵, 맥케익갈색아이라이너, 인조 속눈썹RH2.
작업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을 바른다. •눈썹을 가늘게 그린다. •아이홀을 보라색으로 잡아 그린다. 보라와 핑크를 적당히 그라데이션 해준다.



<그림 38> 작품 III .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

<표 5> 199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지시서



작업 순서

1. 세트를 와인딩하고, 가르마는 양쪽E.P로 나누고, 크라운과 G.P에 한번 더 나눈다.
2. 크라운에서 네이프까지 전체적으로 백콤을 넣고, 네이프부터 C컬의 롤을 말아 U핀으로 고정한다.
3. 크라운은 백콤을 넣어 곱게 빗질을 한 다음 대핀으로 고정하고, E.P에 있는 헤어는 3등분하여 땡는다.
4. 땡는 머리는 귀 뒷쪽으로 고정한다.



<그림 39> 작품 IV .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

<표 6> 1990년대 업스타일 재현과정

스타일링 작업순서		
 <p>1. 와인딩</p>	 <p>2. 섹션</p>	 <p>3. 섹션 옆면</p>
 <p>4. 전두부 땅기</p>	 <p>5. 후두부 땅기</p>	 <p>6. 옆머리 고정</p>
 <p>7. 뒷면</p>	 <p>8. 옆면</p>	 <p>9. 정면</p>

3. 200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작품제작

2000년대 이후의 웨딩 메이크업 트렌드는 내추럴을 기본으로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이용한 로맨틱 메이크업으로서 레드 색상을 포인트로 했거나 비비드 색상을 메인으로 하거나 눈을 어둡게 하는 스모키 메이크업이 선보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내추럴을 기본으로 한 메이크업이었다. 2000년도를 넘어서 최근까지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물광 메이크업과 도자기메이크업과 같은 자연스런 패턴의 메이크업을 신부들이 선호하였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피부표현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웨딩메이크업이 핑크나 퍼플, 브라운 색상에 국한되지 않고 신부의 피부 톤에 맞게 아이라인만 강조해주는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눈을 강조해주는 세미스모키까지 폭넓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림 40>에서 2000년대 메이크업의 특징을 살려 피부표현은 최대한 내추럴하게 표현하기 위해, 모델의 피부 톤에 가장 가까운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붓으로 얇게 펴 발랐고, 아이섀도는 파스텔 계열의 핑크 색상으로 표현하였으며 블랙 색상의 아이라인으로 눈매를 강조하였다. <그림 40>에서 속눈썹은 눈매를 살리되 최대한 자연스런 표현은 위해 날개로 심었고 립은 강하지 않게 전체적인 내추럴한 분위기에 어울리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메이크업을 재현하기 위해 모델 선정은 2000년도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깨끗한 피부를 갖춘 모델로 구성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2000년대 대중적으로 웨딩 메이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된 핑크 색상으로 표현하였고, 이러한 색상의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피부 톤은 밝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퍼플 색상 메이크업 베이스로 피부를 정돈하고 실제 피부색보다 한 단계 밝은 베이지 색상 파우더를 터치하였으며 T존과 눈 밑, 턱 부분에 펄 파우더를 스치듯

가볍게 발라 입체감 있게 메이크업하였다. 작품을 재현할 때 다크 브라운 색상의 웨딩으로 새도를 진하지 않게 넣어 얼굴선이 가름해 보이도록 하였다. <표 7>에서 보듯이 화이트 새도를 베이스로 넓게 발라준 다음, 베이지 핑크 아이새도로 아이라인 부분을 터치해 청순한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눈 꼬리 부분의 아이라인과 점막 아랫부분의 언더라인은 큰 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같은 색상의 새도로 표현하여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준다. 마지막으로 퍼플 색상의 아이새도를 눈 앞머리 부분에 발라 신비로운 눈매를 연출하였으며, 눈 중앙에 화이트 펄로 포인트를 주어 크고 동그란 눈매를 표현하였다. 웨딩 메이크업을 할 때 화이트 펜슬로 언더라인을 그리면 은은하게 발하는 색상이 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주며 눈을 커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화이트 색상이 너무 강하여 뜨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40>속눈썹은 날개로 붙여 자연스럽게 표현한 뒤, 마스카라로 바른 다음 속눈썹과 마스카라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손끝으로 비비면서 붙여주었고 입술은 라이트 핑크 색상으로 메꿔준 후 핑크 립글로스를 충분히 발라 촉촉하게 마무리하였다.

웨딩 메이크업을 할 때 블러셔의 사용은 신부의 피부에 따라 크림을 타입을 쓸 것인지 새도타입을 쓸 것인지 결정하여 모델의 피부가 수분이 충분하면 파우더 한 위에 새도타입의 블러셔를 사용하고, 피부가 건조하면 블러셔의 색감이 나타나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크림타입의 블러셔를 베이스로 썼던 파운데이션과 소량 섞어 톡톡 두드리듯 표현해준다.

<그림 41>에서 보듯이 2000년대 헤어스타일은 C컬의 웨이브를 만들어 웨이브를 그대로 살려준 후 자연스럽게 고정하였고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지만, 뒷머리는 가발을 덧대어 고정을 단단히 하였다.

<표 8>에서 보듯이 200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을 제작하기 위해 셋트를 와인딩하고 E.P의 양사이드에서 브록킹한 다음, T.P에서 크라운까지 백콤(backcomb)을 넣는다. <표 9> 4, 5번에서 보듯이 네이프 4cm위에서 긴머리 가발을 넣고 그 위 2cm위에 한번 더 가발을 넣고 핀으로 고정한 한 다음 크라운에서 G.P까지 백콤을 넣어 뒷머리 사이드부터 C컬 웨이브를 하였다. <표 9> 6번에서 보면 앞쪽도 같은 웨이브를 넣은 다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핀으로 고정하여, 뒷머리의 형태를 완성하였다.

<표 7> 200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업지시서

표현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대 메이크업을 재현하였다.
표현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스트로브크림, 맥 모공프라이머, 메이크업포에버 파운데이션내추럴베이스, 겔랑파우더, 인족속눈썹RH3. 입생롤랑 핑크베이지14번, 메이크업포에버 핑크크림 볼터치,
작업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공 프라이머를 바른다. •투명 메이크업 베이스 바른다.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린컬러의 아이섀도를 자연스럽게 말라준다. •인조 속눈썹을 날개로 자연스럽게 붙여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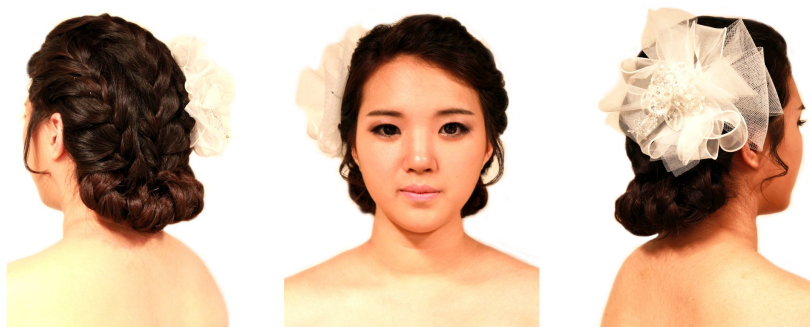
<그림 40> 작품 V. 2000년대 웨딩 메이크업

<표 8> 200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지시서



작업 순서

1. 셋트롤을 와인딩하고, E.P의 양사이드에서 브록킹한다.
2. T.P에서 크라운까지 백콤을 넣고, 네이프 4cm위에서 긴머리가발을 넣는다.
3. 뒷머리 사이드에서 C컬 웨이브를 말고, 앞쪽도 같은 웨이브를 넣는다.
4. 웨이브를 넣은 머리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핀으로 고정하여, 뒷머리의 형태를 완성한다.



<그림 41> 작품 VI. 200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표 9> 2000년대 웨딩 업스타일 재현과정

스타일링 작업순서		
 <p>1. 와인딩</p>	 <p>2. 섹션</p>	 <p>3. T.P백캡</p>
 <p>4. C컬웨이브</p>	 <p>5. 웨이브섹션</p>	 <p>6. 전두부 섹션</p>
 <p>7. 옆면</p>	 <p>8. 뒷면</p>	 <p>9. 정면</p>

4.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작품제작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 특징은 도자기 같은 깨끗하고 건강하게 윤기 나는 피부표현으로 깨끗한 피부를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아이새도나 립 색상은 자연스럽게 표현하였고, 브라운이나 블랙색상의 아이라인으로 눈은 크고 또렷하게 연출하였다. <그림 42>에서 2010년대의 작품 재현은 도자기 같은 깨끗한 피부표현을 위해 프라이머의 선택을 신중히 하였다. 파운데이션과 프라이머의 선택은 그린과 핑크, 퍼플로 한정되었다. 2010년에 들어서 프라이머 기능을 다양하게 출시되었다. 예를 들면, 모공을 없애주는 실리콘소재의 프라이머와 붉은 얼굴을 커버해주는 기능의 프라이머, 미세주름을 커버해주는 프라이머, 유분기를 조절해주는 프라이머 등이 있으며 모델에게는 피지조절해주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였다. <표 10>에서 보면 아이새도의 색상이 많이 표현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하고 속눈썹도 모델의 속눈썹길이보다 많이 길지 않게 날개로 붙여 구성하였으며, 튀지 않으면서 신부의 기품을 표현해주며 소녀풍의 이미지와도 어울리는 베이지, 피치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색상은 색감이 강조되지 않는 투명 메이크업에 적당하며, 한가지 색상만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브라운, 핑크 색상등과 믹스를 하거나 오렌지, 옐로, 그린 같이 튀기 쉬운 컬러를 차분한 분위기로 만들때 베이스 색상과 함께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베이지 색상을 이용한 웨딩 메이크업에서 립은 립라이너를 그리는 대신 촉촉하고 윤기 나는 내추럴 브라운 색상의 글로시 립스틱으로 자연스러운 입매를 표현하거나, 펜슬 컨실러를 이용해 입 주변의 라인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립칼라를 더하여 내추럴하게 연출하였다. 또한 피치 색상을 이용한 웨딩 메이크업에서는 피치에 골드가 섞인 블러셔와 같은 색상의 립글로스를 사용하였

다. <그림 42>에서 보면 피치 색상의 립스틱으로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완성하였고, 피부 표현은 투명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모델의 피부와 가장 비슷한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여 붓으로 피부 곁에 따라 발라준 다음 파우더는 극히 소량의 양을 파우더 붓으로 스치듯 표현하였으며, 아이새도는 전체적으로 피치색상을 펴 발라준 다음 골드 스타파우더로 마무리를 하였다. 2011년 웨딩 메이크업의 경향은 아이새도 색상이 여러가지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하여 한 가지 색상만을 사용하였다. <그림 42>을 보면 볼터치는 크림타입의 핑크 볼터치와 베이스에 쓰였던 파운데이션을 섞어 볼 중앙에 발라준 후, 피치 색상의 새도를 그 위에 덧발라 얼굴 윤곽이 작고 또렷해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 속눈썹은 모델의 속눈썹보다 1mm정도 긴 속눈썹으로 속눈썹사이 사이에 붙여 보다 자연스러운 눈매를 표현하였고, 입술은 페일 핑크 색상의 립스틱을 바른 다음 중앙에 핑크 펄이 있는 립글로스를 발라서 완성하였다.

<그림 43>을 보면 2010년대 헤어스타일은 전체적으로 내추럴하였으며, 전체적으로 C컬의 웨이브를 만든 다음 가발의 사용없이 그대로 웨이브를 풀어 표현하거나, 옆쪽으로 자연스럽게 땀아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을 완성하였다. 199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도 땀아 머리가 유행했지만 2010년대 헤어스타일과 다른점은 전체적으로 백콤을 넣어 볼륨을 많이 넣은 반면 2010년대는 백콤 없이 자연스럽게 땀아서 고정하였다. <표 11>에서 보듯이 201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은 먼저 E.P의 사이드로 브룩킹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백콤(backcomb)을 넣어 고무줄로 묶은 다음 그 머리부분을 S컬로 웨이브를 넣었다. <표 12> 4번에서 보듯이 전두부의 웨이브한 머리를 T.P쪽으로 가져가 핀셋으로 고정한 후 얼굴형에 맞는 볼륨을 만든 후 ,후두부에 묶은 머리 부분을 한 가닥

씩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살려 마무리하였다.

<표 10> 2010년대 웨딩메이크업 작업지시서

	
표현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대 메이크업을 재현한다.
표현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닐라B필프라이머, 시실리파운데이션내추럴베이지, 슈에트라파운데이션붓, 에스까다파우더1호, 아르마니립스틱508, 속눈썹MC, 베네피트레지새도, 메이크업포에버하이라이트4호.
작업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피부를 위해 프라이머로 전체 피부톤을 정리해준다. •모델피부와 비슷한 파운데이션을 붓으로 펴바른다. •파스텔계열의 핑크색도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볼터치도 같은 계열의 컬러로 발라준다.



<그림 42> 작품 VII.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 작품재현

<표 11> 2010년 웨딩 헤어스타일 작업지시서



작업순서

1. E.P의 사이드로 브로킹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백콤을 넣어 고무줄로 묶는다.
2. 전두부머리와 묶은 머리부분을 S결로 웨이브를 넣고, 전두부의 웨이브 넣은 부분도 T.P쪽으로 가져가 고정한다.
3. 후두부에 묶은 머리 부분을 한 가닥씩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살려 마무리한다.




<그림 43> 작품 VIII. 201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표 12> 201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 작품재현과정

스타일링 작업순서	
	
<p>1. 섹션 브로킹</p>	<p>2. 브로킹 뒷모습</p>
	
<p>3. C컬 웨이브</p>	<p>4. 웨이브 옆모습</p>
	
<p>5. 뒷면</p>	<p>6. 정면</p>

<표 13> 2010년대 내추럴 반업스타일 작업지시서



작업 순서

1. 업스타일의 기본적인 볼륨을 위해 전체적으로 세트를 와인딩한다.
2. 세트를 할 때 너무 볼륨이 많지 않도록 10분 이내로 와인딩한다.
3. 섹션은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이롱으로 웨이브를 넣는다.
4. 네이프는 위쪽으로 C컬을 넣고 크라운쪽은 S컬을 만든다.
5. 전두부 웨이브는 C컬로 내어 얼굴이 작아보이도록 돕는다.



<그림 44> 작품 IX. 2010년대 내추럴 반업스타일

<표 14> 2010년대 내추럴 헤어스타일 작업지시서



작업 순서

- 1.업스타일의 기본적인 볼륨을 위해 전체적으로 세트를 와인딩한다.
- 2.섹션은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이롱으로 웨이브를 넣는다.
- 3.전두부 웨이브는 C컬로 내어 얼굴이 작아보이도록 돕는다.
- 4.네이프쪽에 C컬로 낸 웨이브를 고정하고, 옆으로 자연스럽게 땡는다.



<그림 45> 작품 X. 2010년 내추럴 헤어스타일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국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변천을 바탕으로 1980년대-2010년도까지의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경향을 재해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품을 제작하여 국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과 인터넷자료 등을 바탕으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연구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토대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 범위는 웨딩메이크업이 가장 활발했던 1980년대-2010년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 시기는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가장 발전하였던 시기이고 서양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웨딩 메이크업의 스타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웨딩 메이크업은 화려함이 강조되어 퍼플, 핑크, 블루, 브라운등 다양한 색상의 아이섀도를 많이 사용하였고, 깨끗한 피부표현을 중심으로 볼터치는 아이섀도와 립 메이크업의 색상에 맞추어 강하게 하였다. 이시기의 웨딩 헤어스타일은 헵번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앞머리를 손으로 C컬의 웨이브를 만들어서 모양을 낸 다음 스프레이로 세워 고정하였다.

둘째, 1990년대 웨딩 메이크업은 자연스런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웨딩 메이크업에서도 보기 힘든 브라운 톤의 메이크업이 등장하였고, 입체감있는 눈매를 강조해주는 아이홀 메이크업 또한 선호되었다. 199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은 전체적인 볼륨감을 백포인트 위치에 주거나 네이프에 준 다

음 땡거나 꼬기 기법으로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선호 되었다.

셋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웨딩 메이크업이 정형화된 스타일에서 내추럴한 스타일의 연출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메이크업의 색조를 열하게 하고 입술도 립스틱보다는 립글로스로 글로시하게 연출하였다. 200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은 강한 웨이브보다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핀으로 많이 고정하지 않고, 자연그대로의 웨이브를 살려주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넷째,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웨딩 메이크업이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깨끗한 피부표현을 하되 피부의 결을 최대한 살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깨끗한 피부표현을 위한 메이크업 때문에 여러 종류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연출하였다. 2010년대 웨딩 헤어스타일은 고정화된 모습을 탈피해서 완전히 업스타일을 했을 때와는 다른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작품은 위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1980년대-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 4점, 웨딩 헤어스타일 6점을 제작하였다.

작품 I, II는 1980년대 대표적인 웨딩 메이크업과 웨딩 헤어스타일을 제작하였다. 1980년대 유행했던 레드 색상의 립컬러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립 메이크업을 2010년대에 맞게 변형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이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헵번 스타일을 재현하였다.

작품 III, IV는 1990년대 아이홀 메이크업을 펠과 스타파우더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였고, 헤어스타일은 1990년대 유행했던 땡기 기법으로 재현하였다.

작품 V, VI는 2000년대 들어서 자연스런 메이크업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을 반영해서, 핑크 색상을 이용하여 내추럴 메이크업을 표현하였고,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후두부 쪽으로 내려서 핀으로 고정한 웨딩 헤어스타일을 제작하였다.

작품 VII, VIII는 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 특징인 깨끗하고 피부 결을 그대로 살리는 내추럴한 피부표현에 중점을 두었고, 아이새도 색상을 나타내기 보다는 눈매만 또렷하게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웨이브를 만들어 그대로 웨이브 결을 살려 자연스럽게 올리는 업스타일을 제작하였다.

작품 IX, X는 2010년대 들어서 가장 많이 선호되었던 전체적으로 땅아서 고정 시킨 내추럴 반업스타일과 굵은 웨이브를 한쪽으로 내리는 내추럴 헤어스타일을 제작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1980년대-2010년대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웨딩 업스타일의 문헌적 연구가 미비하여 시대에 따른 다양한 재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웨딩 업스타일과 메이크업의 시대별 비교에 대한 다양한 재현이 더욱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경화(2000), 메이크업 총론, 서울:APC.
- 강신표(1994), 한국문화연구, 서울:현암사.
- 강명주(2008), “눈 화장에 따른 형태변화와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미연(1993), “한국여성의 두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량휴(1993),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1981), 한국결혼풍속사, 서울:민속원.
- 김금람(2007), 플러스 메이크업, 서울:예림.
- 김남희(2006), Base Make Up, 서울:예림.
- 김세환(1999), 한국 토탈 메이크업, 서울:서우.
- 김광숙(2001), Thd Make Up, 서울:예림.
- 김은희(2007), Make Up Designory, 서울:예림.
- 김은희(1994), “여성의 머리 형태와 두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미(2000), “해방이후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순, 김미애, 박성희, 오인영(2000), MAKE UP II, 서울:청구문화사.
- 김 환(2001), 열두손가락과 업스타일, 서울:화신문화. Beauty club.
- 김수정(2005), 한국미용100년, 서울:동서문화.
- 김희숙(1998), “20세기 한국과 서양의 여성 화장문화 비교연구”. 성균

- 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2000),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서울:청구문화사.
- 김춘득(2002), 동서양미용문화사, 서울:현문사.
- 권구정, 김선영, 이경선, 김문주, 김찬수, 이경은 (2006), Makeup icon, 서울:청구문화사.
- 국립민속박물관(1996), 한국복식 2천년, 서울:신유출판사.
- 민봉기(1995), 헤어스타일역사, 서울:장원출판사.
- 문숙현(1981), 한가람 봄바람에, 서울:지안사.
- 박춘심(2001), Make-up, 서울:황문각.
- 박목월(1976), 육영수 여사 자서전, 서울:삼중당.
- 박용옥(1982), 근대여성사, 서울:정음사.
- 방수진(2001), 메이크업 아트, 서울:성화.
- 방귀환(1980), 여성한국사, 서울:세일사.
- 서귀임(2009), “시대별 신부 업스타일과 메이크업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단주(1995), Make up Academy, 서울:웅진.
- 신지현(1997), 신미용학개론, 서울:수문사.
- 손복심(2006), “우리나라 업스타일의 변천과정과 재현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미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태순(2004), 서양화장문화사, 서울:동서문화.
- 이순자(1971),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형태 및 장식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2001), “색채화장이 얼굴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나(2011), “시뮬라시옹 개념에 의한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

- 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2008), “고구려벽화에 나타난 여성들이 머리 형태 연구_고리
튼 머리와 엷은 머리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이능희(1995), 태평양50년사, 주식회사 태평양.
- 이광린(1996), 한국개화사연구, 서울:일조각.
- 이현주, 김진희, 김경하, 이 이순분(2004), Wedding Make up, 서울:훈
민사.
- 이혜성(1996), 메이크업. 서울:정문각.
- 이규태(1979), 한국인의 조건, 서울:문음사.
- 양덕재(1998), 최신화장품학(상). 서울:장업신보.
- 조용진(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서울:(주)사계절출판사.
- 정영숙(2001),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경(2003),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
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 전완길(1995), 한국생활문화 100년, 장원, 1995, p.52.
- 주은경(2003), “20세기 전반기 한국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
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완길(1987), 한국화장문화사, 서울:열화장.
- 정미영(1989),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민령, 김예성, 염경숙, 박선희, 김영미(2004), The Beauty

- Make-Up, 서울:예림.
- 최경희(2000), “ 1960년대 이후 한국영화에 나타난 복식의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티나 산티플래허니(2009), 워너비재키, 서울:웅진윙스.
- 홍인자(2000), “한국 화장문화의 연대기적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개화기 이후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송희(2004), “메이크업 경향이 웨딩 메이크업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필남(2004), “ 영화 스캔들로 본 한국적 헤어의 미적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보현(2009), “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경연(2006), “색채 질감에 따른 남성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명숙(1999), 마꾸아쥬예술, 서울:청구문화사.

간행물 및 참고사이트

- 구글, [www. google.co.kr](http://www.google.co.kr)
- 네이버, www. naver.com
- 동아일보(1926) .1926.8.13
- 매일신보(1940). 1940.11.30.

조선일보(1962). 1962.8.12.
경향신문(1958). 8.30.
여원(1960).1960.3
여성동아(1969).1969.7.
향장 (2000).서울: 라네즈.2000.8.
향장 (2001).서울: 헤라.2001.9
WEDDING 21(1998). 1998. 3월호.
WEDDING 21(2001). 2001. 5월호.
WEDDING 21(2002). 2002. 11월호.
WEDDING 21(2003). 2003. 5월호.
WEDDING 21(2004). 2004. 5월호.
WEDDING 21(2005). 2005. 3월호.
WEDDING 21(2006). 2006. 3월호.
WEDDING 21(2007). 2007. 6월호.
WEDDING 21(2009). 2009. 9월호.
WEDDING 21(2010). 2010. 3월호.
WEDDING 21(2011). 2011. 3월호.
MY WEDDING(1989). 1989. 3월호.
MY WEDDING(2004). 2004. 3월호.
MY WEDDING(2006). 2006. 5월호.
MY WEDDING(2007). 2007. 9월호.
MY WEDDING(2008). 2008. 3월호.
MY WEDDING(2011). 2011. 3월호.

ABSTRACT

A study on wedding hair and make up
of brides according to different periods

park young hee
make up special effect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culture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For make up trends, make up thick and dark in the beginning of the period, but as natural style was preferred as time went by, natural make up for brides was enjoyed by many people. Since 2000's, natural style of hair was popular rather than refined and elaborate style. Make up points were given to parts each bride wanted to highlight according to her personality rather than eyes, noses and lips.

To present wedding make up trend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wedding make up and up style hair's the change of period.

This study is represented wedding make up and upstyle according to 1980~2010's. we suggest that they are aesthetic

products for which historical and which fringe and back-combing were used a lot for voluminous hair and colorful makeup was very popular for which a variety of colors were used. For make up and up style trends, makeup was changed naturally. in the case, natural color focusing on clear skin, less eye shadow and rich red lip was popular.

Makeup points were given to parts each bride wanted to highlight according to her personality rather than eyes, noses and lips. A present period' wedding make up and up style preferred clear and bright skin and without excessive highlight or exaggeration. A makeup pattern was changed into natural style with the focus on clean skin.